



본 문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종본인 영어 원본  
보도자료의 번역본이다.

스위스재보험, 2010년 순이익 8억 6천 3백만 달러로 견실한 실적 기록  
전략적 우선순위에 상응하는 새로운 기업 지배 구조 발표

Contact:

**Media Relations, Zurich**  
Telephone +41 43 285 7171

**Corporate Communications, London**  
Telephone +44 20 7933 3445

**Corporate Communications, Asia**  
Telephone +852 2582 3660

**Corporate Communications, New York**  
Telephone +1 212 317 5663

**Investor Relations, Zurich**  
Telephone +41 43 285 4444

Swiss Reinsurance Company Ltd  
Mythenquai 50/60  
P.O. Box  
CH-8022 Zurich

Telephone +41 43 285 2121  
Fax +41 43 285 2999  
www.swissre.com

-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에 발행한 전환사채의 조기상환 비용 반영 후 2010년 순이익은 74% 증가한 8억 6천 3백만 달러, 자기자본이익률은 3.6% 기록
- 전환사채 조기상환 비용 반영 전 2010년 순이익은 23억 달러, 자기자본이익률 9.2% 기록
- 2010년 배당금 2.75\*스위스 프랑 제안
- 1월 갱신 성공적 완료, 2011년 견실한 출발
- 새로운 지주회사 구조 수립 예정
- 향후 5년에 걸친 재무 목표 설정

2011년 2월 17일 취리히 – 스위스재보험은 2010년, 사업 부문의 지속적인 수익성 및 내실 있는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8억 6천 3백만 달러의 순이익, 2.52 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다.

스위스재보험은 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 그 이하에 새로운 기업 지배 구조를 마련하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강화, 사업 부문의 투명성 및 책임 향상, 유연성 확대를 모색할 계획이다.

스위스재보험의 CEO 스테판 리페(Stefan Lippe)는 “스위스재보험은 과거 2년간에 걸쳐 많은 성과를 이루었으며, 자본력 강화, 새로운 전략적 우선순위 확립, 경영구조 합리화 작업을 완료했다. 이제 전략적 우선순위를 강화하고 사업 잠재력을 온전히 활용하기 위한 지배구조의 변화를 통해 스위스재보험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2010년 기록한 견실한 수익력**

스위스재보험은 2010년 견실한 사업 실적을 보였다. 전환사채 조기상환비용 반영 전 순이익은 23억 달러, 자기자본이익률은 9.2%를 기록했다. 전환사채는 2010년 11월 조기 종료되어, 2011년 1월에 그 상환이 이루어졌다. 전환사채 조기 상환비용을 반영한 실적은 아래와 같다.

- 순이익 8억 6천 3백만 달러로 2009년( 4억 9천 6백만 달러) 대비 74% 증가
- 자기자본이익률 3.6% (2009년 2.3%)
- 주당순이익 2.52 달러 (2.64 스위스프랑) (2009년 1.46 달러(1.49 스위스프랑))
- 자기자본 253억 달러 (2009년말 253억 달러)

\* Swiss withholding tax exempt distribution out of reserves from capital contributions



### 사업 부문의 견실한 실적

손해보험 부문은 높은 수준의 자연재해 손실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언더라이팅을 통해 매우 견실한 실적을 거두었다. 영업이익은 대형 사고 발생과 낮은 수준의 순투자이익으로 지난 해 보다 30% 감소한 25억달러를 기록했다. 합산비율은 93.9%(2009년 88.3%)를 기록했으며, 자연재해의 영향은 예상보다 3.0% 포인트 높았으나 기계약 부문의 실적 호조로 0.8% 포인트가량 상쇄되었다. 스위스재보험은 2010년 4분기 호주 퀸즈랜드에서 발생한 홍수로 약 1억 달러의 손실(재해보험 회수 후, 세전)을 예상한다. 이번 홍수로 인해 2011년 1분기 잠정손실은 2억2천5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호주 사이클론 야시로 인한 스위스재보험의 손해액은 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 추정액은 모두 재해보험 회수액 이후,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액의 추정은 상당 부분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수정 및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생명보험 부문은 영업 실적의 현저한 개선으로 양호한 성과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18% 증가한 8억1천만 달러, 지급률은 4.9% 포인트 증가한 88.7%를 기록했다. 2009년 장해보험 계약의 해지로 인한 플러스 요인 및 일부 장부상 잔존책임의 청산으로 인한 영향을 제외하면, 지급률은 3.0% 포인트 상승을 기록한 것이다. 사망률은 예상 수준을 밑돌았으나 전년대비 다소 높았으며, 질병률은 2010년과 전년 모두 예상치 범위 내에 머물렀다.

자산운용 부문의 경우 저조한 수익률로 인해 투자순이익은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전년대비 낮은 감액상각 손실 및 헤징 비용으로 상당 부분 상쇄되어 4십5억 달러의 영업이익을 기록, 양호한 실적을 거두었다. 투자수익률은 3.5%, 미실현 이익/손실이 반영된 총투자수익률은 6.5%로 증가했다.

고위험 포트폴리오 투자부문(Legacy)은 실질적으로 청산이 완료되어 2011년에는 더 이상 별도 부문으로 보고되지 않는다.

### 견실한 자본력 회복

2010년 스위스재보험은 약 4십억 달러의 자기자본을 조성함으로써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으로 인한 영향을 완화시켰다. 자기자본은 2백5십3억 달러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으며, 2010년말 기준 스위스재보험의 S&P 'AA' 등급 초과 자본은 1백억 달러를 상회했다.

이사회는 2011년 4월 15일 연례총회에서 주당 2.75\*스위스프랑으로 배당금 인상을 제안할 것이다.

### 성공적인 2011년 1월 손해보험 특약 갱신

스위스재보험은 2011년 1월 갱신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평균 재보험 시장의 효율 수준은 4~7% 하락했으나 스위스재보험은 신중한 언더라이팅, 맞춤형 솔루션 제공의 성공에 힘입어 시장 평균보다 높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다. 반면, 스위스재보험의 위험조정 효율의 적정성은 2% 하락했다.

\* Swiss withholding tax exempt distribution out of reserves from capital contributions



스위스재보험의 손해보험 1월 특약 수재보험료는 14% 증가를 보이며 견실한 성장을 기록했다. 대형보험사를 위한 맞춤형 솔루션에 대한 수요 증가, 특히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보험 수요의 증가가 주요 요인이 되었다. 대형 사고의 수준이 평균적이라면 2011년 스위스재보험의 합산비율은 약 94%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 전략적 우선순위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신 기업 지배 구조

먼저, 스위스재보험은 자사의 전략 우선순위에 상응하는 새로운 지주회사 수립을 계획하고 있다. 새로운 지배 구조는 고객서비스 향상, 자본 효율 및 투명성 개선, 주주를 위한 장기적인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 단계는 새로이 설립된 지주회사 아래 스위스재보험의 기존 재보험 사업, 기업 솔루션 부문, 그리고 Admin Re<sup>®</sup>의 별도의 신규 사업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다.

기업 지배 구조 개편을 실시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 **고객 서비스 향상** - 스위스재보험의 고객은 전담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게 될 개별 사업 부문을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이들 사업 부문의 유연성과 역량이 향상될 것이며, 고객 맞춤형 시장 접근방식의 개발과 고객 서비스에 대한 보다 진취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 **투명성** - 새로운 기업 지배 구조의 가장 큰 장점은 스위스재보험의 세 가지 사업 부문의 실적에 대한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단순한 지배구조의 확립이라 하겠다. 또한, 이를 통해 사업 부문간 자본과 자산을 할당하는 방식도 보다 명확해질 것이며, 이 같은 투명성의 향상은 규제 초점이 대규모 다국적 (재)보험 그룹에 맞춰지고 있는 현시점에 비추어 볼 때 시의 적절하다 할 수 있다.
- **책임** - 각 사업 부문 실적의 투명성 향상은 이들 부문 내부의 자원 할당 측면에서 책임의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각 사업 부문의 경영층은 각 부문의 전략은 물론 재무 실적, 자본 및 자산 할당, 세금 등 전체 사업 실적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 **유연성** - 새로운 기업 지배 구조를 통해 스위스재보험은 독자적인 방식으로 핵심사업 분야의 관리면에서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Admin Re<sup>®</sup>의 경우 자체 자본력을 초과하는 사업 기회가 있는 경우, 개별 사업 분야를 위한 새로운 자금을 창출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 밖의 장점으로는 각 사업 부문이 각각의 필요에 적합한 자본 및 자금 구조를 갖출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는 이익을 향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새로운 지주회사 구조는 교환오퍼 기회를 제공한다. 관련 증권법에 따라 주주에게는 스위스재보험 주식과 지주회사 신주 간의 일대일 교환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교환오퍼 및 새로운 지주회사 구조에 대한 추가 정보는 2011년 3월 31일 사업설명서를 통해 제공될 것이며, 최초 오퍼 기간은 2011년 4월 15일 개시될 예정이다.



## 수익성 확보를 위한 입지 마련

스위스재보험은 미래 수익성 확보를 위한 탁월한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향후 5 년에 걸쳐 스위스재보험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시장변화는 다음과 같다.

- 2012/2013 년 진행될 손해보험 시장의 경성화
-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와 체결한 비례재보험 특약의 2012 년 만료에 따른 손해 보험 및 기업 솔루션 사업 부문의 25% 성장 가능성
- 자본 요구량 증가 및 산업 통합으로 인해 Admin Re<sup>®</sup> 및 대형 재보험 계약 기회 증가
- 중기 자산 할당으로 옮겨감에 따라 세계 경기 회복으로 인한 재보험, 기업 솔루션 및 자산 운용에 긍정적 효과
- 일부 신흥시장의 경제적 성장과 이로 인한 수익성 개선

이러한 평가 결과 및 과거 2 년에 걸쳐 달성한 견실한 실적을 바탕으로 스위스재보험이 향후 5 년간 추구할 재무 목표는 아래와 같다.

- 자기자본이익률(RoE): 지난 5 년간 5 년 만기 무위험수익률 평균 + 700 베이시스 포인트
- 주당이익률 성장: 5 년간 연평균 10% 성장률
- 주당 경제적 순자산 가치 성장 + 배당금: 5 년간 연평균 10% 성장률

스테판 리페는 “우리는 현재 이러한 시장 여건을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우리의 자본력,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 (재)보험 분야의 전문지식, 혁신성을 바탕으로 스위스재보험은 이익률 향상을 확보할 수 있는 완벽한 위치에 있다”고 밝혔다.



편집자 주

4 분기 실적 정보 (2010년 4분기 대비 2009년 4분기)

		Q4 2010	Q4 2009
전체	순이익(백만 달러)	-725	394
	주당순이익(달러)	-2.12	1.15
	연간자기자본이익률(%)	-11.0	7.0
손해보험	영업이익(백만 달러)	673	833
	합산율(%), 할인율 적용 후/전	88.8/87.2	88.3/86.5
생명보험	영업이익(백만 달러)	304	88
	지급률(%)	84.3	85.7
자산운용	투자수익률(%)	2.6	3.3
레거시	영업이익(백만 달러)	37	32

스위스재보험

스위스재보험은 고도로 다각화된 선도적 글로벌 재보험사로 전세계 20 개국 이상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1863년 스위스 쥐리히에서 창립된 이래 기업과 기업발전에 중요한 위험 관리를 위한 금융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손해보험 상품, 생명보험 상품 및 관련 서비스 등의 전통적 재보험 상품과 더불어 보험 기반 기업금융 솔루션과 보완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사의 종합적인 위험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 Poor's)로부터 'A+'를, 무디스(Moody's)로부터 'A1'을, 에이엠 베스트(A.M. Best)로부터 'M'을 각각 부여 받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1913년 처음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만 약 1,000 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현재 아시아 지역 본부는 홍콩에 있다.